

**2014. 10. 21. [화]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창조경제팀 박준국 팀장 (02-731-2410), 박시정 사무관(2412)

**중국 창업의 요람,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현장방문**
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0월 21일(화)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 과학기술 단지를 방문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현황을 청취
- 중관촌은 중국과학원 등 국가연구소, 북경대·청화대 등 중국 우수대학, 중국 벤처기업·스타트업 등 중국 굴지의 IT 기업 등 과학기술·교육과 우수인재가 밀집해 있는 중국 창업의 요람으로 일 평균 20개 기업이 입주하고 3.5일마다 매출액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관촌 관리위원회 및 전시센터, 청화과기원 과학단지(TusPark), 창업거리 및 창업카페 처구를 방문하여 중국 중관촌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창조경제에의 시사점을 모색
  - 중관촌은 산학연 연계에서 투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TusPark를 조성하고, 이를 기술지주회사가 운영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성공요인으로 파악됨
  - 지리적으로도 청화대, 북경대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고 단지 내에 IBM, Microsoft Google과 같은 글로벌 신기술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상호교류협력의 기반이 조성
  - 또한 커피만 이용하면 창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카페거리에서는 활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기술지주회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등 창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